

## ‘긴급복지지원’ 신안 876건 vs 함평 146건...지역별 격차

가사간병지원 목포 3억7천만원 · 무안 2400만원

김길용 전남도의원 “보편적 복지실현 대응책 마련을”

전남 시·군별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규모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길용 전남도의원(더불어

민주당, 광양3)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인구 수·복지여건이 비슷한 지역 간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신안군 6.4%(876건), 구례군 5.1%(699건) 수준이나, 장성군은 1.4%(190건), 함평군 1%(146건)

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경우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 지역을 제외한 군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면 영암군이 15개 사업에 11억2400만원을 지원한 데 반해, 곡성군은 8개 사업에 4억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서도

목포시가 91명에 3억7500만원을 지원했으나, 무안군은 6명에 24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최근 전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자체간 복지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병욱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매년 단위사업별로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일부 반영해 지원규모가 결정된다”면서 “향후 찾아가는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 등 적극행정 수행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조계종, 장성 백양사 고불총림 해제...지역 불교계 반발

“총림법서 규정한 총림 구성 요건 현저히 갖추지 못해”



대한불교조계종이 장성 백양사에 대한 총림 지정 해제를 의결하면서 지역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6일 제 217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추가로 접수된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 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출석의원 76명 중 67명이 찬성해 가결시켰다.

총림 해제 이유는 고불총림이 총림법에서 규정한 총림 구성 요건을 현저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제120회 중앙종회에서 고불총림 지정 당시 서용스님 생존 시에만 총림을 인정하기로 조건부 지정했다는 점 등도 해제 사유로 제기됐다.

불교에서 말하는 총림(叢林)은 많은 승려가 모여 수행하는 곳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총림이 되기 위해서는 승려들의 참선수행 전문도량인 선원,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 계율 전문교육기관인 율원을 모두 갖춘 사찰을 지칭한다.

조계종의 총림법에는 고불총림 백양사를 포함해 해인사(해인총림), 통도사(영축총림), 송광사(조계총림) 등 전국 8대 사찰을 총림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총림의 가장 웃어른을 방장이라 부른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백양사는 1947년 만암 큰스님이 고불총림을 개창했으며 6·25 전란으로 소실돼 1980년 복원을 시작, 1996년 서용 큰스님이 다시

총림으로 공식 승격시켰다. 하지만 조계종 중앙종회는 “그 동안 백양사는 총림다운 실질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상황이 악화됐다”며 “총림 구성요건인 승가대학원은 학인 수가 현저히 모자란 상태고, 템플스테이마저 건물 밖으로 이전해버렸다”고 총림 지정 해제 이유를 들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 총림 지정 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불교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면서 조계종 중앙종회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백양사 측은 11일이 승려들이 외출을 금하고 참선을 중심으로 수행에만 전념하는 동안 결제일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호남의 천년고찰인 백양사가 하루아침에 총림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민들은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조계종의 총림 해제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주장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설된다

“극심한 교통혼잡 해소 기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를 개설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가 완료, 내년 상반기 이 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진월IC 진출입로 개설은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혼잡과 차량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

로 남구 진월동과 노대동, 봉선동, 효천, 용산지구 거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시는 개선사업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빚는 용산IC와 효덕IC 일대 교통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진월동 진월제 부근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진입이 가능한 진입로와 상무지구에서 노대동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진출로가 설치돼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일대 주민들에게 상당한 교통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영시 시 도로과장은 “진월IC 진출입로 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진월IC가 개통돼 진월, 노대, 봉선, 효천, 용산지구 거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광주시, 14일 수능 맞춤형 특별교통 종합대책 추진

14개 기관 754명 근무, 38개 시험장 교통소통·안내

광주시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광주지역 수험생을 지원하기 위해 수능 당일인 14일 맞춤형 특별교통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수험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광주·자치구·경찰·모범운전자회 등 14개 기관 754명이 상황실과 교통소통·시험장별(38개) 교통안내, 수험생 긴급수송 등에 투입된다.

시험장 주변에는 오전 6시부터

교통경찰, 교통안내원, 모범운전자 회원을 집중 배치해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간선도로의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유도하고, 시험장 주변(200m 이내)의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시내버스 기·종점 15곳과 시험장 주변 지하철 역사 7곳에는 질서요원 70여명을 배치해 차량이 정시 운행되도록 관리한다. 수험장 경유지와 지하철 역사의 시험장



방향 출구 안내 등 수험생 필요정보도 제공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에서는 교통약자 전용차량 182대를 대기시켜 사전예약(10월 30일~11월 10일)한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집에서부터 시험장까지 무료 수송한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